



### 국민연금, 지역민과 하나되는 동행콘서트 성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전주 덕진동 본부 야외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동행콘서트'를 열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공단이 전주시, 하나은행, 하나핀드 서비스와 체결한 '지역과 함께하는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첫 결실로 추진됐다.

공단은 창립 38주년과 전북 이전 10주년을 맞아 주민 1천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대규모 무대를 마련했다. 현장에는 이주배경가정,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 등 문화소외계층 300여 명을 비롯해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자리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오상근 기자



### 김제자보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8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이번 행사에는 주민 약 200명과 봉사자 100명이 함께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금산면행정복지센터, 김제사랑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부 등 13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푸드·의료·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푸드봉사팀은 소분고기 등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으며, 공연팀의 무대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의료봉사팀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는 생활 속 불편을 덜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네일아트, 스포츠레이핑, 이빨, 다육이 체험 같은 생활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 금동, 노인 일자리사업 어르신 찾아 간담회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18일, 추석을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금동 착한가게 현상당(대표 표태수)에서 정성껏 기부한 추어탕 100백(80만원 상당)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25년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3회 흥부제 △남원국가유공자행 등 남원시 가을 3대 축제와 인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 등 주요 시정 사항을 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 황산면,故김천석 선생 추모 제사 열려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8일 한평생 머슴살이로 살면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고(故) 김천석 선생의 추모 제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사는 올해로 288주기를 맞아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 고(故) 김천석 추모각에서 진행됐으며 고인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기리고 따뜻한 이웃간의 정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황산면은 '자신의 재산을 이로운 곳에 썼으면 좋겠다.' 라는 선생의 유언대로 오늘날까지도 고인의 재산에서 나온 이익금을 어려운 마을 주민을 돕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고 있으며, 고(故) 김천석 선생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7월 27일 추모 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규선(전 전주군부군수)·오경재(원광대학교과대학교 수) 모친상= 빈소: 전주효자재택타운 특101호2층, 발인: 9월 20일 오전8시, 장지: 전주승화원

## 전북대, 국제 동물헬스케어 포럼 성황리 개최

###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의 장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 국제 동물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 전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글로벌 동향과 시장 전망, 임상·규제·GMP 최신 이슈, 지역 기업 육성 전략 등 다채로운 의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준화 전북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캔자스주립대 Roman Pogranichniy 교수, 아이오와주립대 윤경진 교수, 일리노이주립대 유동완 교수, 베트남 국립대 Le Van Phan 교수, 일본 야마구치국립대 Ai Takano 교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Alim Isnansetyo 교수 등이 함께 해 국제적 논의의 폭을 넓혔다.

더불어,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계에서도 복십자수의약품(주), 우진비앤지(주), 한국썬팩(주) 등 24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산업 트렌드와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김원일 원장은 "이번 포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매년 체계적으로 행사를 가져 익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은성기자



2025 국제 동물헬스케어 포럼  
Annual Healthcare Global Forum 2025  
익산, 전북

## 장애인식 개선 첫걸음... 전북교육청 '어울소리' 11월까지 공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18일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시작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어울소리는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민 대상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는 트라이올린 3명, 트라이올라 1명, 트라이올라 넷 1명, 트라이올라 트 1명, 트라이올라 1명, 트라이올라 1명, 트라이올라 1명 등 8인 장애인들로 구성, 오는 12월 창단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맑은샘유치원(9월 18일) △남원용성고등학교(9월 25일) △온고읍중학교(10월 23일) △전주서신초등학교(10월 30일) △군산명화학교(11월 6일) △이리모현초등학교(11월 20일) △다솜학교(11월 28일) 등 모두 7개교다.

학교별별로 30~50분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동은 물론, 장애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최재일 유초특수교육과장은 "어울소리"는 올 상반기 단위 채용을 마치고, 꾸준한 연습 끝에 2학기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며 "장애인고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어우러지며,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제는 학과가 보유한 탁월한 연구 역량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학문적 열정이 결합한 결과라는 평가다.

연구실을 이끄는 남창우 교수는 "이번 성과는 전북대 유기소재섬유공학과가 전국 어느 대학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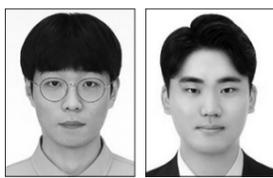
## 전북대 유기소재섬유공학과 대학원생들,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 2년간 연 2500만원 연구비 지원 받아

전북대학교 유기소재섬유공학과 곽영우 박사과정생과 강진혁 석·박통합과정생이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연구장려금은 이공계 박사과정생들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연간 2,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표적 국가 연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남창우 교수팀은 지난해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다. 이로써 전북대 유기소재섬유공학과는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국가적 권위의 장학·연구 지원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입증했다.



곽영우 강진혁

## 전북 대표 마을·주민, 행복농촌만들기 전국 무대에서 빛나다

### 익산 회선마을, 마을만들기 동상

### 김제 금산면, 농촌만들기 금상

### 부안 윤나연씨, 우수주민 금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한 익산시 회선마을과 김제시 금산면이 각각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동상으로, 부안군 윤나연 씨가 우수주민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 규모 행사로,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다.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빈집재생, 우수 주민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우수주민 부문에서는 부안군의 윤나연 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다. 윤씨는 로컬 콘텐츠 기업 (주)고르침촌 대표로서 부안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 농촌 마을의 활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마을만들기 분야 전북 대표로 참가한 익산시 회선마을은 동상을 수상하며 농촌 공동체 우수사례로 이름을 알렸다. 주민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축제와 동아리 활동으로 공동체 결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주민 동아리 '고선지 목동'은 전북 무형유산인 '익산 목발노래'를 공연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토지 임대와 공동 경작을 통해 마을 소득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촌만들기 분야 전북 대표로 참가한 김제시 금산면 역시 동상을 수상했다. 금산문화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자치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동네방네 카페', '무지개마켓' 운영으로 원형장터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성과를 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적인 운영이 돋보이며 농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연환경연수원, 기후재난 대응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원장 김중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수원은 지난 8월부터 도내 환경강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시행하며 지역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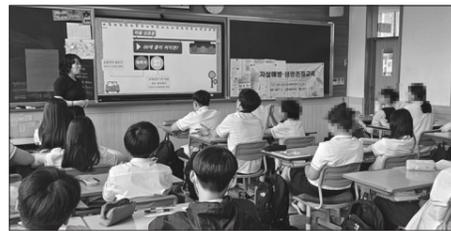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지구온난화 심화로 기후변화 양상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산불·홍수 등 각종 재난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는 도내 환경강사들을 대상으로 기후재난의 특성과 위험 이해, 재난 상황별 대처법, 가정 내 준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졌다. 현재는 군산, 무주, 부안, 익산, 임실, 진안 등 14개 시·군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만호 기자

### 무주 안성면 지사협,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 추진

무주군 안성면 지역사회회보장협의회(공공위원장 김일중, 민간위원장 김장호)가 어르신 일상 생활 행복 증진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협의회 회원들은 안성면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일상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이 거주하는 29가구의 침실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교육 실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7일 한빛중 1학년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고, 정서적 변화가 큰 사춘기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를 주제로 △극한 상황 대처 방법 △학교 내 친구 돕기 △위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센터(063-633-1977)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20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소방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순창소방서는 18일 순창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임실 119안전체험관 순창소방서가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구조대 체험과 심폐소생술(CPR) 교육, 연기소화기 사용법 지도 및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체험형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임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85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호지지사 010-6845-9935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